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시, 항공특화 채용박람회 단독개최 성료

- 사천시가 9월 22일 사천체육관에서 단독 개최한 ‘2022년 사천시 항공특화 채용 박람회’가 700여명의 학생과 구직자가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.
-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수주물량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항공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른 해보다 1개월 앞당겨 개최했다.
- 사천지역 항공업체 등 33개 기업이 참가해 256건의 이력서를 접수했는데 현장 채용 25건, 재면접 108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.
- 또한 KAI에서 미래 항공산업 전망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사 현황과 수행사업에 대해 알려주는 토크콘서트를 열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.

□ KAI, 항공소재 81종 국산화 성공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은 10월 13일 ‘항공소재개발연합’의 국산화 개발 성과 결과 발표를 통해 81종의 항공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- 항공소재개발연합은 2019년 소재 국산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출범하여 KAI를 포함해 총 37개 업체·기관이 참여하고 있다.
- KAI는 2030년까지 사용 빈도가 높은 상위 50% 품종(900여 종)의 국산화를 목표로 현재 알루미늄 압출재와 티타늄 압연재, 분말 등 항공소재와 기계류, 전장류, 배관류의 표준품 등을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뒀다.
- KAI는 대체 성공 시 7500여억 원 상당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며 특히 KCC에서 개발 중인 기능성 도료, 프라이머 등이 적용된다면 향후

약 100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.

- 한편 KAI는 최근 709억원에 경찰헬기 2대와 소방헬기 1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.

□ KAEMS, 케일럼·WSA와 화물기 개조사업 계약 체결

- KAEMS(한국항공서비스)가 케일럼·WSA(월드스타에비에이션)과 10월 11일 항공기MRO(P2F) 사업계약을 체결했다.
- 케일럼은 지난 3월 이더블유케이에서 사명이 변경된 업체로 플랜트사업을 주력으로 하였지만 신규사업으로 항공사업으로 진출한 기업이다. WSA은 영국 런던에 소재한 항공금융리스기업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항공기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.
-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3사는 인증획득을 위한 사전작업과 기술이전, 개조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조속하게 MRO(P2F)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.
- 계약에 참여한 관계자는 “WSA와 케일럼은 한국항공서비스를 아시아 항공기 개조센터로 지정할 계획”이라며 “이는 세계적 항공금융기업인 월드스타에비에이션이 한국항공서비스의 항공MRO능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

도내 동향

□ 경남도, 정부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설립 로드맵 건의

-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우주항공청을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특별법 조기 제정과 설립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.
-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이는 우주항공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

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.

-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특별법으로 추진하면 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내실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.
- 이에 따라 경남도는 기본안을 주무 부처에 제공하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사천시와 함께 ‘우주항공청 연계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’을 시행하는 등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
□ 국토부, ‘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’ 투자선도지구 지정

- 국토부가 무인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.
- 투자선도지구는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시행 이래 맞춤형 재정투입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왔다.
-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드론비행장 등 현재 구축된 무인기 시설과 연계해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, 제작, 시험비행 등 모든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.
- 향후 국토부가 기구축한 드론비행장과 올해 말 준공되는 무인기통합 시험시설 등 무인기 관련 핵심 인프라 등과 연계해 우리나라 무인기 산업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항공우주기업 ANH, 미국 HAECO와 항공기정비 업무협력

- 진주시에 소재한 항공우주기업인 (주)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(이하 ANH)는 항공기 좌석, 인테리어 및 객실 개조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HEACO Cabin Solutions(이하 HAECO)와 싱가포르에서 열린 ‘MRO 아시아-퍼시픽 2022’ 에서 항공기 개조사업 공동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- MRO 아시아-퍼시픽은 아시아-태평양 지역 최대 MRO 전시회 중 하나이다. 총 185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ANH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본 행사에 참여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.
- HAECO와 ANH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시아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항공기 개조사업에 대한 공동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함으로써, HAECO의 국제 인증 기술과 ANH의 항공 기술 개발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

국내 동향

□ 국방부·국정원, 첫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개최

- 국방부와 국정원이 공동으로 10월 7일 제1회 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.
- 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'우주개발진흥법' 개정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우주 위험·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향후 국가안보 관련 우주 개발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.
- 위원회는 국방부 차관과 국가정보원 3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국방부·국정원 국장급 등 당연직 5명과 민간위원 등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됐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운영 계획과 안보분야 위성 개발 계획을 논의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·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□ KT, 국내 최초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 완료

- KT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도심항공교통(UAM)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마쳤다.
- 이번에 구축한 항공망은 'K-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'에

활용되어 전남 고흥항공센터 일대의 회랑과 버티포트에서 UAM 운항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- KT는 이를 K-UAM 컨소시엄사는 물론 UAM 관련 중소 기체 제작사와 운항사에도 제공 및 협력하여 최적의 항공망 프로파일과 설계, 운영 노하우 등을 축적할 계획이다.
- 또한 내년부터는 UAM 전용 항공망에 위성통신 및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해 통신 서비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내 UAM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


해외 동향

□ 친환경소재 입는 항공업계

- 환경보호와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가치소비 트렌드가 되면서 항공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.
-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(ANA)는 10월 5일부터 100% 식물원료 기반 폴리에스터가 사용된 ‘울트라 스웨이드’ 원단과 사과주스를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비건 가죽을 사용한 객실 좌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.
-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울트라 리더라는 비건 가죽으로 인테리어한 비건 헬리콥터를 제작해 납품했다.
- 또한 미국의 델타항공은 사탕수수 식물 섬유로 만든 친환경 식기를 도입하는 등 전세계 항공업계는 친환경 연료 뿐 아니라 인테리어와 부품 등 분야를 확대해 친환경소재를 도입하고 있다.

□ 중국산 첫 여객기 C919 안전 비행 성능 인증식 진행

- 중국이 9월 29일 첫 국산 여객기 C919의 감항 인증(항공기의 안전 비행 성능 인증)식을 진행했다.
- 감항 인증은 항공기의 상용 비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.

- C919는 COMAC가 2006년 연구개발에 착수, 16년 만에 완성한 중형 여객기로 158~168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.
- C919는 지난 5월 상하이에서 고객사 인도 전 시험비행에 성공한 뒤 7월 옌타이, 둥잉, 정저우, 지난, 옌량, 난창 등에서 시험비행을 마쳤다.
- 대당 가격은 약 1억 달러(약 1천400억원)이며 이미 중국 항공사 등으로 부터 1천15대의 주문을 확보했다.

작성일	2022. 10. 14.(금)	보고일	2022. 10. 17.(월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최고봉(055-831-3471)